



일본의 인기듀오 차게(왼쪽)&아스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역사적 공연에 사명감 느껴”

새달26~27일 내한공연 듀오
차게 & 아스카 도쿄 기자회견

“그동안 해외공연을 여러 번 가졌지만 이번만큼 설레고 사명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듀오 차게&아스카는

다음달 26~27일 서울 잠실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차게&아스카 한일친선공연’을 앞두고 25일 일본 도쿄 미야코호텔에서 한일 기자단과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공연은 한국정부가 지난 6월 일본대중문화 3차개방을 한 뒤 일본가수로는 최초로 갖는 1만5천석 이상 규모의 대형공연이다.
차게&아스카는 78년 결성된 뒤 줄곧

정상의 인기를 누려온 가수로 국내에는 후지TV 드라마 ‘101번째 프로포즈’의 주제가 ‘세이 에스’로 잘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28일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예매가 시작된다. 다음은 차게&아스카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공연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기본적으로 우리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공연한다. 한국노래를 부르는 것도 계획 중이다. 수익금은 모두 한국여성문화기금에 기탁된다.

—한국가수에게 곡을 줄 계획도 있는가.

▲일단 공연을 성공리에 끝내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한국가수와의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성채널을 통해 한국 아티스트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특히 HOT의 프로정신이 인상적이었다.

—20년동안 추구해온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음악을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음악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도쿄=위원석기자·batman@〉

‘30억 몸값’ 여성트리오 티키 댔다

벤처기업 ‘보고테크’와 평생계약
튀는 개성 - 화려한 율동으로 승부
강렬한 테크노곡 ‘여름’ 인기몰이

벤처기업으로부터 계약금 30억원을 받고 평생 계약을 맺은 여성댄스그룹이 있어 화제다.

3인조 여성댄스그룹 티키(T.KI), Techno Kid의 약자다. 이들은 지문 인식 보안시스템 벤처기업인 보고테크로부터 개인당 10억원의 주식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대신 평생 이업체와 함께 연예활동을 펼친다.

티키가 이 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개성 때문이다. 요즘은 얼굴만 예쁘고 노래만 잘 부른다고 해서 가수가 되는 시대가 아니다. 개성이 있어야 된다.

상반기 최고의 인기그룹으로 떠오른 사크라도 이들만의 개성미가 먹혀들었기 때문. 바로 티키는 이들

못지않은 개성미를 갖고 있다.

팀의 리더인 란(22)은 중성적인 매력의 소유자. 재즈댄스와 한국무용으로 다져진 몸매에서 터져나오는 코믹댄스가 일품. 여성스러운 느낌의 설(21)은 연극에서 다져진 무대매너를 바탕으로 한 애교가 만점. 막내 류이(20)는 독특한 느낌의 캐릭터로 특히 여성팬에게 인기높다.

이들의 타이틀곡은 ‘여름’.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대중적인 멜로디에 강력한 비트의 테크노사운드. 화려한 의상의 티키와 6명의 백댄서들이 펼치는 무대는 가히 환상적이다. 개성 미인그룹 티키가 펼치는 ‘알록달록 여름대공습’이 가요계에 화제다. 〈황용희기자·hee@〉



신인 여성트리오 티키. 왼쪽부터 류이 설 란.

지수원 첫 베드신 ‘온몸 열연’

‘배니싱 트윈’ 서 신인 구필우와 뜨거운 몸짓

원조 ‘투캅스 걸’ 지수원이 스크린 데뷔 이후 처음으로 파격연기를 선보여 화제다. 지수원은 미스터리 멜로 영화 ‘배니싱 트윈’ (윤태웅 감독 Y2시네마 제작)에서 과감한 베드신을 펼친 것.

‘배니싱 트윈’은 임산부 몸속의 쌍둥이 중 어느 하나가 출산도 되기 전에 저절로 사라지는 이상현상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 이 작품은 쌍둥이 언니의 실종을 추적해가는 동생의 숨막히는 여정을 스릴러와 멜로의 양쪽 시각에서 그려냈다. 지수원은 20대 후반의 주부 유진역을 맡았다. 언니의 죽음에 의문을 갖고 상심감에 빠져 있던 유진은 우연히 만난 ‘아트러브’란 남자(구필우)와 격정적인 혼외정사에 빠진다.

“상황전개상 베드신 연기가 필수적이었고 2년만 만의 컴백작이라 제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에 몸을 사리지 않았어요. 자칫 ‘벗는 배우’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윤태웅 감독은 “지수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촬영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특히 신인 구필우를 리드하는 베드신은 일품이었다”며 대만족을 표시했다. 다음달 26일 개봉. 〈점미혜기자·beau3@〉



영화단신

시나리오공모 대상 선정

영화진흥위원회는 26일 올해 상반기 극영화 시나리오 대상에 이용

연의 ‘로리코스터’를 선정했다. 우수작에는 한국영화아카데미 12기생인 김시경과 신준호의 공동작품인 ‘나비’와 남은정(28 방송작가)의 ‘동행’ 등 2편을 선정했다. 대상은 2천만원, 우수작 2편은 각각 1천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스포츠서울

2000년
7월 29일 (토요일)
제4879호



스타카페

서갑숙 유럽 향수여행



‘성’에 대해 당당한 여자’ 서갑숙(39)이 향수전문가가 된다. 서갑숙(39)은 지난 16일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자신이 출연한 영화 ‘불자’ (박철수 감독 넥스트필름 제작)의 시사회를 마친 뒤 이틀남 유럽으로 향수여행을 떠난 것.

평소 향수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서갑숙은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등지에 위치한 향수공장을 찾아 향수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운 뒤 귀국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귀국하면 향수관련 전문칼럼을 기고하는 등 향수전문가로서도 활동하겠다는 것. 〈오〉

비비콜연락방 전화하고도 최고 세일 혜택 받으세요! 02-700-9700	즉석미팅게임 당신을 잊지 못해 밤 기쁨을 02-700-9699	연락방 즐거은 대화로 하루를 보내요! 02-700-9494
윙드즈연락방 02-700-5989	10대의 고민일기 02-700-4446	헬로우연락방 02-700-5622

연락방
둘만의 대화!! 짜릿한 만남!!
(02) 700-5282
오 이 벨 리

목마르니?
이 기분이 바로 아이시스!
내가 찾은 모아시스
먹는샘물 아이시스